

02 고 교 과 목 별

미적분을 선택할 것인가

가산점·지정과목·실제 유불리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수능최저가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 272줄 · 15개 대학
- ◆ 지정·가산점·제한 없음 셋의 무게가 다른 까닭 — 문이 닫히느냐 언덕이 있느냐
- ◆ 미적분으로 4등급보다 확률과통계로 2등급이 나은 경우 — 최저는 등급으로 셉니다
- ◆ 정하는 차례 넷 · 「표준점수가 유리하다」를 첫 이유로 삼으면 안 되는 까닭

01 · 숫자부터

못 박아 둔 자리가 있습니다

「미적분 해야 하나요, 확률과통계 해도 되나요.」

고1 겨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고, 그건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세어 보십시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수능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를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	얼마나
최저 문장에 미적분·기하 지정이 있는 줄	272줄
그런 조건을 둔 대학	15개
자연계열 자리 가운데 비율	7%

자연계 자리의 7%입니다.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러니 안 해도 된다」로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 이건 최저 문장에서만 센 것입니다. 수능최저가 아니라 반영 방법 쪽에 지정을 둔 곳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지정이 걸리는 자리는 이보다 많습니다.

둘 — 지정이 걸린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15개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골고루 퍼진 7%가 아니라 특정 대학에 뭉친 7%입니다. 입니다.목표가 그 안에 있으면 100%이고, 밖에 있으면 0%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의 수능최저 문장을 저희가 집계. 반영 방법에 둔 지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대학의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02 · 무엇이 다른가

지정·가산·아무 조건 없음

대학이 수학 선택과목을 다루는 방식은 세 갈래입니다.

방식	요강의 말	확률과통계 선택자에게
지정	「수학(미적분/기하)」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가산점	「미적분·기하 응시자 ○% 가산」	지원은 되지만 점수에서 밀립니다
제한 없음	「선택과목 제한 없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셋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지정은 문이 닫히는 것이고, 가산점은 문은 열려 있으나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안 하면 불리하다」는 말은 어느 쪽인지 밝히지 않으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가산점은 얼마나 무거운가

가산 비율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요강에 적힌 값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이 붙는 대상도** 확인하십시오 — 수학 점수에만 붙는 곳이 있고 총점에 붙는 곳이 있습니다.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에 없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탐구 지정입니다. 수학은 제한이 없는데 **탐구를 과학으로 못 박는** 곳이 있습니다. 의약학 계열에 특히 그렇습니다. **수학만 보고 안심하시면 탐구에서 걸립니다.** 최저 문장을 끝까지 읽으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가산 비율과 적용 대상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03 ·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점수와 문의 크기

선택은 결국 둘을 저울에 다는 일입니다.

저울의 한쪽	물을 것
문의 크기	미적분을 하면 더 열리는 자리가 내 목표 안에 있는가
점수	미적분으로 지금보다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미적분은 확률과통계보다 대체로 어렵고 공부량이 많습니다. 미적분으로 4등급을 받느니 확률과통계로 2등급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보았듯 수능최저는 등급 합으로 셉니다 — 과목 이름이 아니라 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목표 대학·학과를 대여섯 곳 적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	그 요강에 지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	지정이 없으면 가산이 있는지 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잽니다
4	둘 다 없으면 등급이 잘 나오는 쪽을 고릅니다	그게 유일한 잣대가 됩니다

2번에서 대개 답이 나옵니다. 의약학이나 특정 공학 계열을 목표로 하신다면 지정이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문·사회·상경 계열이 목표**라면 미적분이 이득이 되는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영역에 쓰시는 편이 최저 충족에 유리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저울질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점검표

고1 겨울이나 고2 초에 **한 번만 정확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선택과목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대학·학과를 **대여섯 곳 적어** 두었는가
- ☐ 그 요강의 **수능최저 문장** 을 직접 읽었는가
- ☐ 반영 방법 쪽에도 지정이 없는지 보았는가
- ☐ 지정이 아니라 **가산점** 이라면 비율이 얼마인가
- ☐ 가산이 **수학에만** 붙는지 **총점에** 붙는지 확인했는가
- ☐ 탐구 지정 도 함께 확인했는가
- ☐ 미적분으로 **어느 등급** 이 나올지 가늠해 보았는가
- ☐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정시 요강도** 보았는가

여덟 번째를 잊지 마십시오. 수시와 정시의 **선택과목 조건이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수시만 보고 정했다가 정시에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을 **조심하십시오.** 미적분 수업은 길고 비싸서 학원이 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대로 **지정이 걸린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밖에서는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낫습니다.** 목표 대학 **요강 대여섯 개만 읽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한 시간이면 하시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선택과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아직 목표 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정하나요?

그럴 때는 **계열로 정하십시오**. 대학은 몰라도 **이과인지 문과인지**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공계·의약학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 미적분 쪽을 권합니다. 지정이 걸린 자리가 그쪽에 몰려 있고, **나중에 목표가 생겼을 때** 문이 닫혀 있지 않게 해 둡니다.

인문·사회·상경이 분명하다면 확률과통계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시간을 국어나 탐구에 쓰시는 편이 최저 충족에 유리합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한 학기만 미적분을 해 보고**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2 중반을 넘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 진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고1 겨울에 한 번 정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Q. 미적분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하다던데요?

해마다 다르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선택과목 사이의 표준점수 차이는 **그해 응시자 집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면 그 과목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구조인데, 누가 몰릴지는 **시험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유리하니까**」를 선택의 첫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아는 이야기이고, **그 이득은 등급이 흔들리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둘뿐입니다. **요강에 적힌 지정과 가산**, 그리고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나은 등급을 받는가**. 이 둘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선택과목은 **유행이 아니라 요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대학 요강 대여섯 개를 읽으면, 고민이 대개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집계는 수능최저 문장에서 센 값이라 **실제 지정 자리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조건은 실지 않았으니 반드시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과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